

24 朝鮮의山水  
(조선의산수)

이 책은 육당 (六堂) 최남선 (崔南善) 선  
생의 강연집이다 1947년 10월에 출판한  
116쪽의 1책자인데 우리 나라의 역사 지  
리 지식을 할 수 있다

또한 이 책은 백두산 근찬기 (白頭山  
勤贊記) 와 조선유람가 (朝鮮遊覽歌)

와 조선상서문답 (朝鮮常識問答) 이 더불어

No

No

20X10

20X10

20X10

20X10

이 六卷(유당) 선생의 국문예찬기라 함은

있나

선생은 서문에서 「 많은 송서가 있어 강연

은 되도록 되어 하야 앞 논다 라 나오 라는 것이

생긴 이래 이래 저래 끌려 다니 면서

이왕이매 조선경신과 우리 문화의 제물을

제물용 부쳐 10수년간 왜 많은 원고가

되어 있는데 「조선의 산수」가 그 일부 이라

이것은 검열을 삭제와 변경(變改)가

많아서 원형에서 멀어 졌다.....」

20X10

20X10

필라논 6.25 후 무기동에 있는 선생님들

서계 (書濟) 하소원 (下素園)을 가 본적이

있따 선생님들이 3.1 독립선언문도 기초자란

것은 우쿠나 아는 사실이지만 기구한 운명

으로 해방후 친일파를 몰려 고초를

겪기도 있따

선생님들 친일파를 본 즉된 이유가 부민

관계 대 학생들을 몰아내고 학도병을 지어

하라는 강연문을 했다는 것이라 알려지

고도기 못이겨 강연술 한 것은 사실이리

그러나 선생은 이광수(李光洙)와는  
 달리 해학성 있는 먹물 썼다 「이사간  
 물아 존재 간다고 다 죽는거냐?」고  
 웃을 때 홍장승 지낸 김준업(金  
 俊燾) 선생은 회고록에서 유채 선생의  
 먹물 상거래에 만주에 주문증 발급하여  
 소개 하시 정부를 갖는 것이다  
 또한 선생은 일제가 만주 건국 때 그의  
 고수를 임명 하고 일조(日朝) 동조론(同  
 祖論)을 밝히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

조선의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밝혀주는

면서 교수작을 반박한 안드레아스 하르트

이 책은 조선의 명산과 조선의 하천.

조선의 바다와 반주의 풍경이 그 내용이 다

나는 이 책을 통하여 남북의 경계 간

추가로 지구대 (靛哥嶺地淸峯) 즉 정지선이

있어 보이는 것임을 알았다 또 남해안

(南海峯)은 동태의 수두말 (蠅頭末) <sup>과</sup> 만 전남

의 해남각 (海南角) 사이를 알았던 것은

알았다 또한 신성문 고대 삼국 (三國)이

